

■ 학제의 인물 - 예문여고 UN평화사랑회 고유진 회장

‘UN평화문화특구’ 알리미 역할에 보람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9일, 대연동 UN기념공원 일원 57만㎡를 '부산남구UN평화문화특구'로 지정고시했다.

인근 대학과 문화시설을 연계해 조성하는 UN평화문화특구는 '세계 평화와 자유 수호 성지'라는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평화체

홈페이지 만들고 UN참전용사와 소통

통영시 제주도 등서 특구 홍보활동 벌여

힘 문화관광을 통해 남구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이에 한 여고생이 특구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민간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화제다. 예문여고 2학년 고유진(17·용호1동)양이 그 주인공이다.

유진양은 그동안 자체 홈페이지(www.unpeacezone.com)를 제작해 개별적으로 UN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E-mail로 교환하며 비공식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러다 유진양과 뜻을 같이한 예문여고 학생회 간부 20여 명과 함께 'UN평화사랑회'를 만들어, UN기념공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안내 및 통역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터키 참전용사들이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UN기념공원에서 추모행사를 했을 때,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보답하는 나라로서의 경의와 감사를 표시하고자 터키어로 쓴 감사의 편지를 남쪽하고, 참전용사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연등을 전달했다.

6·25전쟁 당시 15,000여 명을 한국에 파병했던 터키 참전용사 35명은, 이날 국가보훈처의 초청으로 11개국 2,300여 명의 6·25전쟁 전사자가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UN군 묘지인 UN기념공원에서 함께 싸웠

던 전우들의 고귀한 넋을 위로했다.

학생회는 지난 4월 해운대 장산과 간부 수련회가 열린 경남 통영시와 한산도 제수당에서, 그리고 지난달에는 제주도 등지에서 관광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는 등 유엔평화문화특구 홍보활동을 펼쳤다.

유진양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UN군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전하고자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출신국의 날'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 학생부장 서보근 교사는 "학생들이 지역에 관심을 두고 UN평화문화특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봉사활동 이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정화 기자

‘사랑 심는 사람들’ 아름다운 선행

대연정보고 학생 2명에 장학금 전달

작은 마음을 모아 봉사하는 이웃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사랑심는 사람들'은 최근 천안함사태의 희생 청년 문영욱 중사가 졸업한 대연정보고등학교(교장 박일호)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랑심는 사람들'은 그동안 모은 120만원으로 두 명의 불우학생들에게 각각 60만원씩을 전달했다. 봉사재원은 식사비를 아끼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마련했다.

지난해 결성된 '사랑심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한 학생에게 분기당 60만원씩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7명이 활동하고 있는 이 단체는 지속적으로 회원을 영입해 보다 큰 봉사를 다짐하고 있다.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이들은 로타리클럽 등에서도 큰 봉사를 펼치고 있는 숨은 선행자들로 참 봉사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조상영 기자

■ 사랑과 사랑

경승실장에 위촉

응현스님(황령산 성암사 주지)은 지난 16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실에서 경승실장위촉장을 수여받고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각종 문화·종교의식을 주관할 계획이다.



책과 함께 아이들 꿈도 컸으면...

지역아동센터 후원하고 있는

김희규 면학도서 대표

책 선물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는 주린이 있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면학도서 대표직을 맡고 있는 김희규(38·용호1동)씨는 1년 전부터 남구의 한 지역아동센터를 후원하고 있다. 김대표와 남구열린지역아동센터의 인연은 1년 전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이 면학도서에 아동들이 볼 책을 구입하러 서점을 찾으면서부터 시작됐다.

"아이들 책을 구입하러 갔다가 직원 분께 후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때는 사장님인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했는데 명함을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김대표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과 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갔다. 한 차례 더 아동센터를 방문한 김씨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흔쾌히 후원계좌를 만들었다. 그 이후 지역아동센터에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후원하고 있다. 김대표는 후원금 외에도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학습지 30권도 매달 후원하고 있다.

지난 설날에는 아이들에게 피자 파티를 열어주고 서점에 초대해서 아이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을 한 권씩 선물을 주기도 했다.



"제가 남구에 산지 30년 정도 되는데, 1년 6개월 전 면학도서와 인연이 되어서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남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김 대표가 경영하는 서점에는 색 색깔의 예쁜 패지 저금통 수십 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저금통에는 도서를 구입하는 아동의 이름이 붙어있다. 아동도서를 구입하는 이들에게 1% 나눔 행사를 하고 있다. 작은 저금통들 사이에는 황금색의 커다란 저금통도 자리하고 있는데 그 저금통엔 서점 앞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저금하고 있다. 황금색 저금통이 가득차면 그 돈은 불우이웃을 위해 쓰여 진다고 한다.

현재 대연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김 대표는 모교에도 후원을 하고 있으며, 체육교사로 있는 친구의 부탁으로 중앙중학교 역도부도 후원하고 있다.

류진아 기자

■ 축하합니다

지역사회 헌신적 봉사로 국민포장 수상

김영섭 한국자유총연맹 부산남구지회장

김영섭 한국자유총연맹 부산남구지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연맹 본부에서 열린 연맹 창립 제56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받았다.

김 지회장은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연맹의 발전과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엔 포장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남구지부 운영위원과 부지회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2007년 2월 남

구지회장으로 취임, 지회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은 물론 회원영입과 각종 행사에 적극 참석하는 등 연맹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부지회장으로 재임 중에는 조직원 배가운동을 벌여 통 분회, 청년·여성회원 등 정예회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조직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와 단합대회를 주관, 동분회와 지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포상 제도를 제정해 자유수호 운동에 헌신하는 회원과 분



회를 선정 상을 수여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다 동지대위원회 홍보 확산에 힘써왔다.

명절에는 불우이웃돕기와 경로잔치 행사를 열고 있으며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문현2동 선형상사 백호정 대표

미 육군성 장관 명의 감사장 받아

22년간 신발골격(shoe last) 제조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는 한 업체 대표가 최근 미 육군성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미 육군성이 개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현2동에서 장애인 전용 맞춤형신발을 수년간 제작해 온 선형상사 백호정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미 육군성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9일 백호정 대표에게 미육군 참모총장과 미육군성 장관 명의의 감사장을 보내왔다.

육군성은 감사장을 통해 "자유를 수호하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전 세계에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미군들에게 훌륭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백 대표의 숭고한 정신과 기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미육군 자유의 수호탑이 드리는 감사장과 함께 배지를 보내왔다.

백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미육군에 장애인전용 맞춤형신발을 공급하며 미육군성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선형상사의 제품은 개개인의 발 모양에 맞게 신발골격



을 제작해 장애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파병 등으로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다. 이 사실은 신발을 신어본 장교 몇몇이 미 육군성에 들어가면서 알려져 이번에 감사장을 보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위한 친절 에너지 충만

오름도 친절지기

남구도서관 황미경 담당

남구도서관은 독서, 공연(상영), 교양강좌,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제공 하고 있다. 이 문화공간에는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환한 웃음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황미경 담당(41·사서6급)이 있다.

황미경 담당은 청진하는 메시지를 얻어보았다. 주민 강덕순씨는 아이들 모둠숙제를 하기 위해 남구도서관을 찾았다.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질문에도 차근차근 친절한 답변과 바쁜 업무 중 인대도 모둠숙제에 필요한 자료까지 챙겨주며 자신의 아이처럼 배려해 준 황미경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글을 보내왔다.

노경원씨는 남구도서관에서 오해가 있었다. 너무 흥분해서 자칫 싸움으로 번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민원해결 척척
편안한 도서관 분위기 조성에 온힘

곳에서 황미경씨를 만났다. 자신이 좀 심하게 했는데도 너무나 친절하게 처분한 설명으로 오해를 풀어주었다. 환한 웃음으로 민원인들에게 아낌없는 친절서비스를 베푸는 황미경씨는 적극 추천한다는 강한 메시지와 함께 현재 관장님의 지도력에 이렇게 친절한 직원들이 있어 구민

으로서 행복하다고 전해왔다.

황미경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남구도서관에 근무해 왔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항상 민원이 발생 할 수 있고 모든 민원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친절과 불친절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나타난다고 한다. 직원을 또한 친절한 마음가짐으로 눈과 귀를 열어 놓고 근무한다면 감사함을 직원들에게 돌린다. 중간관리자로서 직원들과의 업무 조율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도서관의 이미지를 심어줘 언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남구도서관과 함께 문화생활과 여가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 한다.

1994년 세무직 공채 1기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황미경씨는 아들만 셋을 두어 부산하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책 읽는 모습에 아이들이 자연스레 책을 좋아하고 대화체널도 끊기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바로 직장 일로 연결되어 만족하고 복을 많이 받았다고 겸손해 하는 황미경씨. 그 모든 에너지가 바로 남구도서관을 찾은 주민들에게 되돌려지는 복이 아닐까!

최정순 기자

더위에는 팔빙수가 '최고'

16년간 한자리서 팔빙수 팔고 있는

용호3동 소문난 팔빙수 김성수씨 가족



여름철 대표적인 먹거리 팔빙수를 값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다.

그곳은 다름 아닌 용호동 이기대자 연공원 입구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맞은편에 위치한 '소문난 팔빙수' 집.

올 여름은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마다 여름철이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이곳을 찾아왔다.

원래 이곳은 16년간 횡집을 운영하던 곳으로 가게 앞에서 소문 없이 팔빙수를 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손님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팔빙수 전문점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됐다.

김성수씨는 맛있는 팔빙수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했다.

모든 음식 재료는 집에서 직접 조리했다. 팔을 삶고 사과·딸기·복숭아잼을 손수 만들어 팔빙수를 완성했다.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하루에 세 번씩 가게를 찾는 마니아층이 두터워지고 배달 주문도 쇄도했다.

손님들은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인 팔이 달지 않으면서도 구수한 맛이 일품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팔가씨가 천정부지로 뛰는 가운데에서도 가격이 저렴하고 방부제 걱정없이 웰빙 먹거리인 팔빙수를 먹을 수 있어 행복하다는 손님들도 많다.

김성수씨는 "집에서 직접 만든 팔과 과일잼을 직접 곁들이 팔빙수 맛은 착한 가격과 함께 손님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는 것 같다"며 "백화점 빙수보다 소문난 팔빙수 맛이 좋다고 해주는 단골들의 말을 들을 때 신이난다"며 활짝 웃었다. 가까운 곳에 직접 배달도 한다. 요금은 보통 1,500원, 특대 2,000원.



문민희 기자

인타넷 신규/변경시 진짜 현금 38만원		
XPEED ▶ 인터넷 · 인터넷 요금 10%할인 ▶ 전화 · 무선전화기 제공 · 무선인터넷 무료제공 ▶ IPTV · 실시간방송서비스 · 3개월무료 제공	SK broadband ▶ 인터넷 · 인터넷 요금 15%할인 ▶ 전화 · 무선전화기 제공 · 가입기간 무료통화 ▶ IPTV · 실시간방송서비스 · 1개월무료 제공	QOOK ▶ 인터넷 인터넷 요금 10%할인 모뎀임대료 무료 ▶ 인터넷 무선전화기 제공 가입기간 무료통화 ▶ 인터넷 실시간방송서비스 3개월무료 제공
현금38만원	현금35만원	현금16만원
무료 ★ 부산 경남 가입개통을 2위 / 고객센터 1위 / 믿고 전화주세요^^ ★ 전화 080-888-2662		

대호레포츠 회원모집 합니다

수영·헬스·에어로빅·아쿠아로빅
(수시모집)

※ 여름맞이 전 종목 대폭 할인 행사

위치 : 유엔로터리에서 외국어대학 방향 150m 지점

☎ 627-0027~8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빠근하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7:00~8:20, 10:30~11:50
오후 6:00~7:20, 7:30~8:50

국선도 대연수련원 ☎ 612-9393

(대연5동 기아자동차 옆)